

다산포럼



박원재
울곡연구원장

‘누리대’에 젓가락이 가게 되는 까닭은

들은 어렸을 때의 어머니 음식 맛으로 언젠가는 회귀하게 되어 있다는 식의 해석이 그런 것들이다. 말을 만들자면, 마더텅(Mother tongue: 모국어)에 베풀어가 ‘마더테이스트’(Mother taste: 어머니의 손맛)의 강고함인 셈이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든 불변의 사실이 하나 있다. 이 변화는 누리대가 아니라 내가 변한 결과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뜬금없는 철학적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법도 하다. 누리대를 싫어하던 예전의 나와, 그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이는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 만약 같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허룻밤에도 기와집 열두 채를 지었다 허룻었다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놈의 속성이니 거기서 일관성을 찾기도 그렇고, 우리 ‘몸’이라는 것 또한 구성 세포가 쫓게는 14일 길게는 6개월이면 전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고 하니, 여기서 나의 불변함을 찾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기는 마찬가지 아닐까 하다.

며칠 전 우리 시대의 낭만 가객 최백호의 콘서트에 다녀왔다. 여전히 명불허전인 노래도 노래였지만 사이사이 간주처럼 풀어놓는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여운을 안겨 주는 것이었다. 올해 칠십이 된 것을 자축하며 ‘7 seven’이라는 타이

틀로 순화공연 중인 그는, 사주를 보니 구십여덟까지 산다고 하더라면서, 구십까지 노래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런데 그 말에서 너스레라기보다는 어떤 진정성이 느껴졌다. 자신에게 가수 생활의 흥취를 가져다 준 ‘낭만에 대하여’를 마흔다섯에 만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른다섯 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노래였다고 했다. 그러니 팔십에는 팔십에 가야 나올 수 있는 노래가 있을 것이고 구십에는 또 그 나이에 도달해야 나올 수 있는 노래가 있을 터이니, 구십까지 노래하는 것이 뭐 어려울 게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누리대 무침에 슬며시 젓가락이 가리라고는, 나 역시 오십 줄까지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최백호’라는 변치 않는 개성이 있어 이십대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를 작곡하고, 사십대에 또 ‘낭만에 대하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노래들이 이십대의 ‘최백호’와 사십대의 ‘최백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성싶다. ‘내가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여가는 것 이나’라는 오래된 가르침이 떠올러지는 대목이다.

언제부터가 청춘들이 너무 쉽게 삶을 버린다. 특히 같은 또래에게 영향력이 큰 젊은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들이 잇달

만하면 뉴스를 탄다. 세밀이 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 해를 반추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올해에는 이때문에 그 돌아봄의 결이 많이 다르다. 우리 사회의 청춘들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들이 그날 혀 한 번 차고 말던 예전과 다르게, 마음에 체기(滯氣)를 이루는 경우가 잦아서이다.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내 아이들이 비슷한 연배를 살고 있어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그들의 그런 선택을 방관해 온 ‘큰대’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싸구려 감성팔이일 망정 미안한 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나 때는 말이야’라는 식의 잔소리로 들릴지라도, 그들에게 이런 말은 꼭 하고 싶다. 자신을 상수(常數)로 여기지 말라고. 상수인 삶은 없다.

삶은 언제나 변수(變數)일 뿐이다. 세상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그 세상을 보는 삶들이 바뀌고, 그러면 마술처럼 오지 부동일 듯싶던 세상도 종내는 바뀐다. 그러니까 부디 지금의 상황을 고정시켜 절대시하고 조금씩 허거나 남달하지 말기를 권한다.

‘오라-토끼 그림’에 정답이 없듯이, 누구에게나 모든 세대에게나 똑같이 보이는 세상이란 없다.

교단에서



김진우
일신중 교장

이층근 선생님

통을 찡겨 교실로 향하면서 맛보기로 떠준 꿀을 한 스푼씩 먹었다. 맛보기로 꿀이 반병이나 비었다. 그래도 꿀은 팔리지 않았다. 고침은 “이렇게 받아먹고 한 병도 사지 않으면 어찌나”고 화를 냈다. 투덜거리며 아랫한 비웃음을 남기고 교무실을 떠났다. 맛보기가 문제였다. 그렇게 꿀을 불신했으면 맛보기도 불신했어야 했다. 학교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신상품을 소개하고, 무슨 청약저축 가입을 권유하지만 좋은 물건, 실속 있는 금융 상품은 새벽부터 줄을 서지 학교까지 찾아오지 않는다. ‘사면 호구요, 안 사면 찌질하다’고 하니 외부인 출입 차단이 필요했다. 30여 년 전 어느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었다.

이층근 선생님은 우리 학교 배움터 지킴이이다. 군에서 27년간 근무하고 영관급 장교로 퇴직하셨다. 부대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관현악단을 창단하고, 군단급 이상의 각종 대회에서 여러 차례 부대 표창을 받는 등 장병들의 존경을 받으신 분이다.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한 가지 사례는 이 분의 인품을 말해주고도 남았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 병들을 고향으로 귀가하도록 버스 정류

소에 데려다주면 한두 명이 아니라 50% 정도가 다시 부대로 돌아와 며칠만 더 머물다가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무슨 캠프도 아니고 군대 생활을 더하겠다니... 그 것도 제대병 대다수가.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뻥이 많다지만, 냉혹하리 만큼 스스로에게 철저한 이층근 선생님의 말씀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8시에 출근하여 도로를 건너오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두 팔로 맞이한다.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이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간다. 학교 순회로 일과를 시작하여 쉬는 시간마다 외진 곳 살피기 8년째다. 학생들은 안전하고, 교무실에 꿀을 팔러오는 분도 없다. 학생들이 만든 신문에는 “현역 장교로 나라 지킴이, 퇴직 후엔 학생 지킴이, 밝은 미소로 긍정의 힘을 전도하시다”라고 실렸다. 한 평 남짓한 곳에서 세 곳의 출입문과 16개의 CCTV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뒷밭에 고추와 상추를 재배하여 나눠주신다.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낮말이 새버리지 않게 하고 웃음으로 배웅한다.

학교에는 간혹 민원 전화가 온다. 예측한 현안이 있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면 같은

수학 시험 문제를 두고 오전에는 너무 어렵다고 항의 전화가 오고, 오후에는 난도가 높아 변별력 있어 좋다는 격려 전화가 오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같은 내용의 민원 전화를 몇 번 받았다. 교무실로 오기도 하고 내가 직접 받기도 했다. 한 번이 아니라 복수의 인근 주민이었다. 민원 내용은 고맙게도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 어떻게 표창할 방법이 없겠느냐, 주민들이 행정 기관에 추천하면 되겠느냐, 날마다 출근하면서 배움터 지킴이를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다”였다.

며칠 전에 이 민원이 해결되었다. 이층근 선생님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리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축하합니다!”란 플래카드를 교문에 걸고 기뻐했다.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니 수많은 학생들과 교무실 선생님 모두가 나섰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이 따로 필요가 없었다.

혹시 독자 분들이 우리 학교에 들리거나 전화로라도 이층근 선생님께 축하 말씀을 해주시면 이 층만한 기쁨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따뜻한 사연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칼럼을 마치게 되어 정말 좋다.

社說

광주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가 관건이다

광주시가 인공 지능(AI), 스마트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분야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시화되면서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가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엿그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열고 광주 4개 지구와 울산 3개 지구, 서울 1개 지구 등 8개 단위 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광주의 경우 광산구 빛그린 국가산단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과 도시첨단 국가산단의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 북구와 광산구 첨단3지구의 AI 융복합지구 등 네 곳이 대상이다.

이들 후보지는 개발 계획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투자 기업에 유리한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조

성,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광주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40명 규모의 투자 유치 전문가인 가칭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되고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5조 7751억 원의 생산, 1조 9063억 원의 부가가치, 3만 7075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시행된 지 16년이 됐지만 ‘무늬만 자유구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투자 유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활과 국내 기업 투자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면밀한 투자 유치 전략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비례 정당’ 창당 꿈수 부리지 말라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치권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1988년 개정된 ‘선거구·단순다수 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현행 선거법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두 거대 정당이 과잉 대표되면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아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제 새 선거법으로 치르는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선 정의당을 비롯한 중소 정당의 의석수 증가가 예상된다. 녹색당 등 다양한 색깔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가칭)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석준하기 위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가뜩이나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빈틈을 파고 들어 실리를 채우겠다는 꿈수가 아닐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가짜 정당을 급조해 의석을 늘려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비민주적·비상식적 발상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마저 비례정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마당이다. 거대 양당이 비례당을 만든다면 지지자들은 지역구에서 지지 정당의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는 비례정당에 찍어 의석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출 기회마저 봉쇄하게 된다. 비례정당 창당은 정치 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정치 질서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밀 흥운(紅雲)을 헤치고 큰 실오라기 같은 줄이 붉기가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眞紅)같은 것이 차차 나와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솟불 같더라.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구슬 같고, 맑고 통랑(通朗·투명)하기는 호박도곤(보다) 더 급더라.”

고교 시절 배운 ‘동명(東溟)일기’의 일부다. 조선 순조 때 여류 문인 의유당(意幽堂)이 함흥판관으로 부임한 남편과 함께 함흥에서 50리 떨어진

시바르동 동이 트면서 붉은 빛깔이 더욱 짙어지는 듯하더니 불쑥 해가 솟았다. ‘지구별’의 장엄하면서 가슴 벅찬 풍광이었다.

해넘이와 해돋이는 매일 반복되는 자연 현상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일출·일몰을 바라보는 이의 감흥은 유별나다. 더욱이 연말과 연초에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묵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열기 때문이다. 한국전문연구원은 올해를 넘기는 마지막 해는 신년 가거도에 서 가장 늦게(오후 5시 40분)까지 볼 수 있고, 새 해를 맞는 첫 해는 독도에서 가장 먼저(아침 7시 26분) 볼 수 있다고 예고했다.

12월 31일과 1월 1일, 여수·고흥·완도·해남 등 전남 여러 지역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펼쳐진다. 순천 와은 선착장에서는 달집태우기 등 해넘이 행사가 열리는데 그렸음을 느낄 수 있다.

지난 8월 중순, 기자는 인상적인 일출 장면을 보았다. 중국 윈난성 5000m대의 하바설산(哈巴雪山)에서다. 한밤중에 캠프를 출발해 네 시간 30분가량 지났을 때 동녘 지평선에 붉은 피가 형성됐다.

/송기우 문화2부장 song@

기고

산업 현장 실습생에 대한 관심

에게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재법 제123조에 따라 현장 실습생(산업 현장에서 실습하는 직업계고, 4년제 및 전문대학생)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이므로 사업주는 일반 근로자의 고용 신고와 동일하게 현장 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급 현장실습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수 총액을 0원으로 하여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연히 A씨는 현장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한해서는 특별 적용 대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된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실습생 제도는 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에만 1만 2266개 기업에 2만 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종종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실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 관련 안전사고는 10여 건에 달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산업 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내년 1월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현장 실습생에 적용토록 법적 보호망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고등학교·대학교의 모든 현장 실습생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가 개정된 덕분이다. 1998년 제정된 ‘현장 실습생 특별 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직업계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학제 및 취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 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 보편화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년 만에 이번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별)의 적용 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6만 명)에 대학 현장 실습생(16만 명)이 더해질 경우 산업 현장의 현장 실습생 22만 명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보상받지는 현장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다.

보상은 치료비 및 휴업 급여(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의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 급여도 지급할 수 있다. 또 재할 및 직업 훈련도 지원하고 있어 노동 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제도적 정비가 이뤄진다고 해도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의 정착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중추이자 노동 시장의 주역이 될 청년층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 특히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현장 실습생’의 길에 뛰어들어 학생들은 성인들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사업주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p>“...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밀 흥운(紅雲)을 헤치고 큰 실오라기 같은 줄이 붉기가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眞紅)같은 것이 차차 나와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솟불 같더라.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구슬 같고, 맑고 통랑(通朗·투명)하기는 호박도곤(보다) 더 급더라.”</p> <p>고교 시절 배운 ‘동명(東溟)일기’의 일부다. 조선 순조 때 여류 문인 의유당(意幽堂)이 함흥판관으로 부임한 남편과 함께 함흥에서 50리 떨어진</p>	<p>시바르동 동이 트면서 붉은 빛깔이 더욱 짙어지는 듯하더니 불쑥 해가 솟았다. ‘지구별’의 장엄하면서 가슴 벅찬 풍광이었다.</p> <p>해넘이와 해돋이는 매일 반복되는 자연 현상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일출·일몰을 바라보는 이의 감흥은 유별나다. 더욱이 연말과 연초에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묵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열기 때문이다. 한국전문연구원은 올해를 넘기는 마지막 해는 신년 가거도에 서 가장 늦게(오후 5시 40분)까지 볼 수 있고, 새 해를 맞는 첫 해는 독도에서 가장 먼저(아침 7시 26분) 볼 수 있다고 예고했다.</p> <p>12월 31일과 1월 1일, 여수·고흥·완도·해남 등 전남 여러 지역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펼쳐진다. 순천 와은 선착장에서는 달집태우기 등 해넘이 행사가 열리는데 그렸음을 느낄 수 있다.</p> <p>지난 8월 중순, 기자는 인상적인 일출 장면을 보았다. 중국 윈난성 5000m대의 하바설산(哈巴雪山)에서다. 한밤중에 캠프를 출발해 네 시간 30분가량 지났을 때 동녘 지평선에 붉은 피가 형성됐다.</p> <p>/송기우 문화2부장 song@</p>
해를 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